




# 올바니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APOSTOLATE OF ALBANY

- 주 소: 17 Exchange St. Albany, NY 12205
- Cafe.daum.net/kccalbany 
- 주임신부: 나도진 안젤로
- 총회장: 김현석 임마누엘

본당 전례	주일, 토(성모신심)	10시	고해성사	미사 전 성체현시로 미사 후 실시
안 내	첫주 목, 대축일(평일)	19시 30분	병자, 유아세례, 혼인, 각종축복 (집, 가정, 차)	주임 신부에게 문의

##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6년 6월 7일

**[ 입당송 ]**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 제1독서 ]** 신명 8,2-3.14L-16  
<하느님께서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주셨다.>

**[ 화답송 ]**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 제2독서 ]** 1코린 10,16-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 복음 ]** 요한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입당 147    봉헌 217    성체 153    파견 142

### 이번주 축일자

6월 10일 : 이채민 올리비아, 이유나 올리비아  
6월 13일 : 이병숙 안토니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공인 성경(주석)



New American Bible  
Revised Edition



### 주일 미사 전례 담당

날짜	전례력	복사	독서	해설	반주
6/7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김성자/나수경	정윤석	MR
6/14	연중 제11주일	구민서	나수경/정창륜	정윤석	이윤희
6/21	연중 제12주일	김민우	이종훈/김성자	정일호	이윤희



## 안젤로 신부님의 복음 단상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빵이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을 뿐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빵이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꼭 필요한 분이심을 강조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실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당신의 살이라고 하시는데, ‘살’은 몸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살(몸)을 내어 주시는 죽음에 대한 언급이다.

유대인들은 ‘살’을 먹는다는 것에 당혹하여 예수님께 반감을 느끼며 논란을 벌인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나아가 살뿐 아니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다. 이는 짐승의 피조차 먹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다.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로 선포된 ‘살과 피’는 예수님의 전부를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실 ‘살과 피’의 실재를 드러낸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속 관계를 이룬다는 의미가 있다. 곧 그들 안에 당신이 머무르시겠다는 말씀이다. 살아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고 살게 하셨듯이, 당신을 먹는 이들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살아 계실 그리스도의 현존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 이는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 복음 실천

미사 중 성체를 받아모시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화살기도 바치기.



## □ 본당 소식

### 미사 안내

6월 12일 금요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 저녁 미사는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점심식사

- 이번주 : 성모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총구역 공지

1. 하프문 구역미사 : 6/13 토요일
2. 니스카유나 구역미사 : 6/20 토요일
3. 클리프톤 파크 구역미사 : 6/26 금요일
4. 콜로니 구역미사 : 6/27 토요일

### 우리들의 정성

- 5/24 헌금 \$254, 교무금 \$300, 성전보수기금 \$300
- 5/24 미사인원 43명

### 제대회 공지

제대를 장식할 꽃을 봉헌하실 신자분들은 제대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